

---

# 2022년 제18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2. 4. 29. ~ 5. 5.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2. 4. 29.	시청률	0.002

### 【총 평】

‘1분기 GDP 전기 대비 0.7% 상승’에서는 수출 호조 지속 가능성과 올해 경제 성장 목표 과제에 대해 진단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과 국내 총생산의 부문별 증감 상황 그리고 민간소비 등 내수 회복 방안 등을 폭넓게 살펴보았다. 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5%로 하향 조정했지만 한국은행은 매 분기 평균 0.6~0.7%의 성장 속도를 달성하면 연간 성장률 3.0% 달성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 상하이 봉쇄 등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수출의 호조 덕분에 0.7%의 성장률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민간소비가 줄어들었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감소한 상태에서 하반기의 성장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알뜰신잡’은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앞두고 일상 회복 가이드를 전했다.

### 【구성 및 내용】

경제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생산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국내에서 얼마만큼 부가가치가 창출됐는지 알 수 있다. 지난 7분기 연속 우리나라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IMF는 전 세계의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5%로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0.7%로 수출이 호조세를 기록하며 올해 1분기 GDP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앞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성장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GDP를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물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 생산물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출과 소비가 늘어나야 한다. 작년 국내총생산량 증감을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 0.5%, 정부소비는 0.0%, 건설투자는 - 2.4%, 설비투자는 - 4.0%, 수출은 4.1%, 수입은 0.7%를 기록해 정부소비의 증감없이 지난해 4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감소로 내수 시장이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정부도 한계 상황을 맞고 있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중국발 불황을 우리나라 역시 영향을 피할 수 없고,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은 글로벌 경제 시장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고 금리 인상 압력 등으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다면 하반기의 경제성장률은 1분기보다 낮을 것이다. 민간소비의 위축 또한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건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야외 활동이 위축되면서 소비 부진이 이어져 왔고 4월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대면 서비스 중심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물가가 워낙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기준 금리 인상과 맞물려 당분간 민간소비는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알뜰신잡’은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려주었다. 코로나19 감염병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영업 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을 해제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사항이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2. 4. 29.	시청률	0.065

## 【총 평】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전달했다. 새봄 재개방으로 활기를 찾는 관광지,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되찾은 대학가, 교민사회도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 등 밝은 소재가 시선을 끌었다. 이와 함께 이웃사랑 실천 헌옷 기부, 양파김치 담그기로 농민 돕기, 청소년 돌봄 도시락,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 자녀 지원 등 훈훈한 미담을 담은 소식이 사회의 온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특히 6.25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현실을 느낄 수 있는 '두타연'과 영연방 4개국 가평전투 추모식은 6.25 전쟁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 【구성 및 내용】

- 금강산 가는 길 양구 '두타연' 2년 만에 다시 열려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인 강원도 양구군의 두타연은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고 있다. 생태탐방로, 전망대, 징검다리, 출렁다리가 있다. 6.25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현실을 느낄 수 있는 지리체험장과 6.25전쟁 전사자 유령비 등을 볼 수 있다.
- 대학 캠퍼스·주변 상권, '일상 회복' 분위기  
대학교 캠퍼스가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대학주변 상권도 매출이 2배이상 오르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일상 속에서 손 씻기, 환기, 마스크 착용 등 일상적인 개인방역 수칙은 계속 지켜야 한다.
- 빗장 풀린 국경 '이탈리아 교민사회'도 활기  
이탈리아는 지난달 초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해외 입국자에게 격리 면제를 허용했고,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도 해제했다. 한인 여행사와 숙소도 영업을 재개하고, 몰려드는 예약문의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 영연방 4개국, 가평전투 추모식 '참전용사' 헌신 기려  
한국전쟁 당시 경기도 가평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윌리엄 크라이슬러 씨가 휠체어에 의지해 옛 전선을 찾았다. 가평에 세워진 영연방 참전기념비 앞에 4개 나라 대사, 군 부대장, 지역주민 등이 모여 이국땅에서 숨진 명령들의 넋을 기렸다.
- "애들아~ 밥 먹고 놀자" 아동청소년 전용식당 눈길  
경기도 군포의 아동청소년 전용식당 '밥 먹고 놀자'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도시락 만들기 한창이다. 밥만 먹는 곳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들의 만남 장소이다. '밥 먹고 놀자' 식당은 봉사를 넘어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는 사회운동으로 확대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 자녀 위한 '한국 적응 교육'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고려인마을은 우크라이나 난민 동포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 뿐 아니라 국내 입국 항공권과 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	한류에 빠지다 K컬처TV		
방송일자	2022. 4. 30.	시청률	0.068

### 【총 평】

‘세계가 반한 맛 K푸드 한식’편에서는 한류 열풍을 타고 세계로 뻗어가는 한식의 인기,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식, 한식 인기가 높은 이유 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한식의 자긍심을 높였다. 특히, 외국인에게는 한식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건강한 음식이라는 점을 널리 알렸고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식 BEST5를 퀴즈식으로 선정한 포맷이 흡인력을 높였고, 외국인의 선호 이유를 설명해 시청자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한국식 치킨인 프라이드 치킨 인기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출연자 전지현의 치맥 효과로 촉발됐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한식진흥원 임경숙 이사장이 출연해 한식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외국인의 한식 만족도와 관심도가 높아져 농식품 수출이 급증하는 현상을 분석해 설득력을 높였다. ‘한국을 달린다 챔보의 V-로그’는 한국 벚꽃 명소가 보고 싶다는 멕시코 카르멘의 영상편지에 이어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을 소개했다.

### 【구성 및 내용】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식에 대해 임경숙 한식진흥원 이사장이 출연해 주요 17개국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식 만족도와 관심도에 나타난 한식의 인기를 소개했다. 또,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K-푸드 베스트5를 소개하며 외국인들에게 인기인 이유와 한식 열풍으로 이어진 수출증가 효과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설명해줘 몰입도를 높였다. 한식진흥원이 한식을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해 한식 밀키트 12종을 개발해 세계 각지에 제공하고, 한식 관련 가공식품 수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계획을 말하며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부각시킨 구성이 돋보였다.

지난해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신선농산물은 7억2천만 달러(11.4%) 증가했고, 가공식품은 34억 4천만 달러(16.2%) 증가했다. 뉴욕, 파리, 두바이 등 해외 주요 17개국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를 한 결과 한식에 대한 만족도는 95.5%로 나왔다. 또, 한식에 대한 관심도는 70.2%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식 5위는 김밥으로 레시피 영상을 개발해 해외에 배포하고 있고 공식 유튜브에서도 레시피가 공유되고 있다. 4위는 떡볶이로 한류 스타들이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슈가 된 한식이다. 3위는 비빔밥으로 기내식에서 매우 인기 있는 음식이기도 하다. 2위는 김치로 면역력 증진 식품으로 꼽히며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이 선호되고 있다. 1위는 한국식 치킨으로 세계 최고의 프라이드치킨을 검색하면 한국 프라이드치킨이 나온다. 임경숙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성인병을 앓고 있다 보니 좋은 식재료로 좋은 조리 방법으로 만든 음식을 먹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영양학자들이 영양학적 조합에 맞는 음식으로 한식을 꼽았다”며, 우리 한식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2. 4. 30.	시청률	0.026

### 【총 평】

‘우리는 은퇴 계획으로 숲을 샀습니다.’는 초등학교 교사 부부가 퇴직을 하고 강원도 원주에서 숲을 가꾸며 인생 2막을 살아가는 귀산 7년차 숲 할아버지와 숲 할머니의 모습을 전했다. 은퇴를 기점으로 전원생활을 꿈꾸던 부부는 작은 텃밭 대신 커다란 숲을 샀는데, 아이들이 자연에서 배우길 바라는 마음에서, 놀고 배우는 숲을 만들겠다는 부부의 염원이 담긴 ‘놀배숲’으로 숲의 이름을 지었다. 특히 교단에서 내려와 계획적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실행하며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구성 및 내용】

‘귀산 7년 차 부부의 숲 가꾸기’는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숲 할아버지와 숲 할머니로 살아가겠다는 주인공의 포부와 함께 숲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은 은퇴 부부의 건강한 삶과 평화로운 일상이 잔잔하게 그려졌다. 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재직한 부부는 전원생활을 꿈꾸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던 중 강원도 원주의 숲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소박하게 텃밭 농사나 지을 생각이었는데, 부부는 아이들의 신나는 배움터로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가꾸고 있다. 처음에는 귀촌을 반대하던 아내의 마음도 단박에 사로잡을 만큼 아름다운 숲에서 소박한 삶을 즐기고 있다. 부부는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한 해만 먹을 만큼의 농사를 짓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좋은 먹거리를 먹고 있다는 자부심까지 느낄 수 있어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건강한 은퇴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남편은 매일 아침 국민체조와 운동을 하고 있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원도 사회경제적 지원센터에서 하는 ‘성장단계별 창업컨설팅’ 수업을 받고 있다. 배움에 있어서 나이는 상관없다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 아들과 며느리 손녀가 방문하면 손녀의 손을 잡고 냇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자신이 손수 만든 팔레트 뗏목을 이용해 강을 건너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자연 속에서 아이 스스로 성장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해 주고 있다.

남편은 “나이가 들면 최고의 가치를 생각해서 행동해야 하는데 최고의 가치는 나눔”이라며 “우리 나이에 누군가 놀 수 있는 장소를 준다면 누구를 행복하게 해줬을 때 그거보다 더 좋은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돈벌이와는 거리가 멀더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최상의 가치라며, 그래서 즐겁다고 말했다. 또 아내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오래 생활하다가 마침표를 찍는 순간부터 공허하고 무의미해지는 삶이 될 수 있다”며 미리 퇴직하기 전에 준비를 해서 의미 있는 삶이 되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조손가족들도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이 많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먼지 날리는 키즈카페에서 놀고 있다며 남편은 인생의 삼락중에서 포손지락이 으뜸이라며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2. 5. 1.	시청률	0.017

### 【총 평】

‘친북’에서는 지난 4월 25일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기념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 야간 열병식을 소재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연설 의미와 배경, 5월 중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진단했다. 특히 “언제든 핵무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이 무력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심각한 위협이라는 진단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핵실험을 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경각심을 일깨웠다. 역대 최대 야간 열병식의 숨은 의도를 파악해 권력 정당성을 내세운 충성심 강조,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해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다목적 배경이 있다는 점이 설득력을 높였다. 한반도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남북 미 대화 계기가 마련돼 “한반도에 봄이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날이 찾아오기를 바란다는 마무리 메시지가 공감도를 높였다. ‘이슈텔링’에서는 북한의 최근 변화된 외식문화와 길거리 음식 트렌드를 통해 북한의 달라진 실상을 바로 아는데 도움을 주었다.

### 【구성 및 내용】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야간 열병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열병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2만여 명의 인력과 25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되었다. 4월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김일성 주석이 항일빨치산 결성을 주장한 것에 기인한다. 북한이 컴컴한 밤에 열병식을 하는 이유는 조명 효과를 극대화한 극적인 효과와 밤에 열병식을 하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일수도 있다. 이번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입고 나온 흰색 군복은 원수복으로 김 위원장이 집권 10년 만에 당군정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낙하산 부대가 북한 국기를 휘날리며 내려오는 영상이 대형 모니터에서 재생되었다. 또한 이외에도 홍보 영상에 힘을 많이 주었는데 각종 편집기술이 동원되었다. 이는 얼마 전 ICBM 발사영상에도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김 위원장은 대내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협박을 할 수 있는 강해진 나라가 되었으니 나의 지도력을 믿고 따르라는 메시지와 대외적으로는 핵무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니 협상에 응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전까지 북한은 핵무기 보유는 전쟁억제를 강조했는데 이번 연설은 국가의 근본이익을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는 일종의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을 보면 핵실험 재개를 예고했다고 해석할 수 있어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있다.

‘이슈텔링’은 대북제재와 경제난으로 인해 변한 북한의 음식문화에 대해 알아봤다. 1990년 중반 이후 장마당에서 음식을 팔기 시작하며 길거리 음식이 등장했고 외식문화도 시작되었다. 요즘은 외식을 많이 하고, 배달도 해준다. 노점에서 음식을 팔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담당부서에 노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장사할 수 있다.

프로그램	라떼의 정석 꾀대할매라구요?		
방송일자	2022. 5. 1.	시청률	0.000

### 【총 평】

‘자원순환 크리에이터’와 ‘쓰레기산을 아시나요?’편에서는 자원 순환 크리에이터 홍다경 씨의 환경 지킴이 운동을 통해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었고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자원순환 크리에이터는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일이며,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직업이다. 또 기업에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소비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홍다경 씨는 현재 지구시민연합의 청년팀 ‘지.지.배’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지.배’는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의 줄임말이다. 환경을 위해서 나무 심기도 하고 최근 산불 피해를 본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하는 등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 【구성 및 내용】

자원순환 크리에이터 홍다경 씨는 지구시민연합의 청년팀 ‘지.지.배’의 리더로 ‘지.지.배’란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의 줄임말이다. ‘지.지.배’가 하는 주요 활동 사업으로는 자석 낚시가 있다. 물속의 고철을 자석을 이용해서 건져내는 일이다. 또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으로 환경과 건강을 모두 지키는 일이다. 이밖에 자원순환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홍다경 씨가 환경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스무 살 때 뉴질랜드로 봉사 활동을 갔다가 그곳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가 함께 버려지는 장면을 목격하면서부터이다. 이렇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다간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 귀국 이후 환경 운동을 결심하고 2017년 환경동아리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를 설립했다.

홍다경 씨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다 ‘쓰레기 없는 쓰레기 파티’를 기획했는데, 참여인원이 200여 명에 달했지만 행사 후 나온 쓰레기 양은 50리터 한 봉지에 불과했다고 한다. 홍다경 씨는 쓰레기 줍기 국가대표로 2020년 도쿄올림픽 비공식 종목으로 참가해 예선에서 1등을 차지했지만 아쉽게도 본선이 치러지지 않았다.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활동은 ‘쓰레기 산’ 알리기이다. 전국에는 약 400여 개의 쓰레기 산이 있고 그 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뮤직 비디오를 촬영하고 있다. 쓰레기 산은 보통 땅 주인을 속이고 무단으로 불법 쓰레기를 버린 후 도망가는 수법으로 만들어진 다. 따라서 우리 환경에 치명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쓰레기 산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 감시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청년들의 체력 증진과 삶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활동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그동안 가장 보람찬 순간으로는 작년 추석에 사촌 동생과 국토 대장전을 떠났다가 쓰레기의 심각성을 깨달은 동생이 이를 학교에 적극적으로 알린 것이다. 앞으로 사업장 폐기물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고 싶으며 더 나아가서는 환경부 장관이 되어서 환경을 주요 과목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2. 5. 1.	시청률	0.021

### 【총 평】

‘여순항쟁과 백운산의 원혼들 - 광양 민간인 희생 사건’편에서는 1948년 여순항쟁 이후 반군 세력이 백운산에 입산한 이후 반란군과 토벌군과의 교전과정에서 부역자로 몰린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안타까운 민족적 비극을 재조명했다. 광양읍 세풍리, 옥룡면, 진상면 어치리 주민들의 피해사례를 통해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비극이 일어났는지, 왜 민간인 희생이 컸는지 그 당시 시대상과 배경, 역사적 교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80대 고령 유족과 목격자의 생생한 당시 증언,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탄탄하게 구성된 탐사보도식 포맷이 역사적 다큐성의 가치를 높였다. 또한 민간인 학살 당시 처참했던 이야기가 목격자의 증언으로 디테일하게 묘사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했다. 전쟁 참상과 민간인 피해 내용 관련 흑백자료 화면과 주요 내용을 축약한 마무리 부분이 역사 기록물로서의 강한 인상을 남겼다.

### 【구성 및 내용】

1948년 여순항쟁 이후 반군 세력 중 일부가 백운산으로 들어가면서 군경의 토벌작전, 부역자 색출 등으로 무고한 민간인의 많은 희생이 있었다.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던 혼란스러운 시기에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적 상황을 남아있는 피해자의 유족의 증언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당시 부모와 삼촌, 할아버지가 희생된 아픈 사연으로 살아가는 70대 후반에서 80대가 된 당시 희생자 가족들의 증언이 있었다. 특히 부친 3형제가 총살을 당한 76세 박채규 씨와 82세 이현모 씨의 부친 총살 증언은 참혹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 광양읍 세풍리에서는 1948년 11월 초 14연대 군인 한 명을 끌고 마을로 들어와 젊은 사람들을 무작정 끌어내었다. 그리고 논에 전부 집결을 시켜 취조를 시작했고 반군에 협조한 부역자를 색출했다. 결국 4명의 마을주민들이 지목되어 무선리재로 끌려가 총살을 당했다. 광양읍은 반군의 주요 공격 대상인 광양읍에서는 1949년 9월 경찰서, 관공서, 15연대 주둔지를 대규모 습격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좌익 협조자로 의심되는 마을 주민들을 색출해 검단재 등지에서 총살하기도 했다. 백운산 줄기 골짜기를 따라 마을이 자리잡았던 옥룡면의 경우에도 민간인의 피해가 컸다. 인근 왕금산은 금광굴이 있던 곳으로 1949년 9월경 동네주민들이 왕금산으로 끌려가 사살 당했다. 진상면 어치리에서는 빨치산과 토벌대의 교전이 잦았다. 특히 어치리 마을은 빨치산들이 배후마을로 활용하면서 더욱 피해가 컸다. 당시 어치리는 청년들의 입산사례가 많아 토벌대의 주요 관심대상이었다. 이에 1949년 9월 토벌대는 주민들을 마을회관 공터로 모이게 한 뒤 이장을 포함해 9명을 사살했다. 반군들에게 밥을 해주거나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였다. 옥룡면 운평리에는 빨치산들이 식량과 물자를 탈취하는 일이 빈번했다. 운평리 주민들의 많은 수가 행정기관에서 일을 해 빨치산들에게 반동분자로 찍혀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했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2. 5. 1.	시청률	0.000

### 【총 평】

‘폐자전거의 변신으로 관광혁신’편에서는 버려지는 자전거를 재탄생시켜 친환경 관광을 선도하는 부바커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구체적 사업을 소개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었다. 부산을 ‘그린스마트 도시형 친환경 모빌리티’로 진화시키는 제안으로 부산 관광뉴딜지원사업 공모전에서 1위의 영광을 안은 부바커 사업은 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신선한 제안으로 주목받았다. 자전거투어 코스 제안과 향후 관련 사업 계획인 자전거 택시 서비스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했다.

### 【구성 및 내용】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19년 설립이후 부산 지역의 관광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중에서 관광과 관련된 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지원해 창업을 촉진시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관광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포함해 관광기업 협업 매칭, 일자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예비창업자, 초기 창업자, 성장 창업자 등 단계별로 모집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사업 자금과 입주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조국인 매니저는 ‘부산 관광 뉴딜 공모전’의 기획자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기본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업이다. 이 공모전의 선정 기준은 디지털, 친환경, 사회안전망 등 한국판 뉴딜의 취지에 맞아야 하고 독창성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사회 기여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는 재생 자전거를 활용한 친환경 관광 사업을 제안한 부.바.커가 1위로 선정되었다.

부.바.커는 버려지는 자전거를 재탄생시켜 부산을 ‘그린 스마트 도시형 친환경 모빌리티’로 진화시키는 제안으로 1위를 차지했다. 부.바.커는 자전거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로 자전거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른 문화와 예술을 접목하는 매너 라이더라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자전거를 타고 가서 여행지의 쓰레기를 줍고 지역 음악가들의 공연도 함께 즐기고 일상에서 환경을 지키고 지역 문화를 향유하는 여행을 기획해 제공하는 기업이다. 특히 폐자전거를 활용하기 때문에 폐기 과정에서 많은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자동차로는 즐길 수 없는 부산의 또다른 매력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부.바.커의 한수진 대표는 자전거를 이용한 추천 부산 여행지로 깡깡이 마을을 꼽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가이드 제임스 씨는 ‘산복도로’를 꼽았다. 산복도로를 봐야 부산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부산의 포용력을 한 눈에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자전거는 두 바퀴라는 기본에서 변하지 않았다”며, “혁신은 꼭 새로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자전거를 통해 혁신이 아니라 작은 혁명을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